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Peace with God! Peace of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

오늘은 6.25 한국전쟁 73주년입니다. 교회는 이 6.25를 기억하면서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던 암울한 일제강점기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조국은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으나 불행하게도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이념의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과 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 학살, 부상, 납치 실종되었으며 10여만 명의 아이들이 전쟁고아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16개 국가의 젊은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이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참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소생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상처 위에 기적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평화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평안(Peace with God)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평안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Peace of God)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6.25전쟁이 주는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2023년 6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8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3년 세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일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

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교자 : 김서연 조건우 계 2명
- 유아세례자 : 김주는 백설현 정윤우 정윤하 계 4명 총 6명



7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

7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7월 첫 번째 토요일인 7월 1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더운 여름의 시작을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 은혜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2023 흥해작전 은혜 중에 마쳐

오늘 찬양예배 시 승전 감사예배

지난 6월 6일(화)부터 시작된 2023 흥해작전이 6월 24일(토) 새벽기도회를 마지막으로 장장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승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군외관)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욘 42:1-6)



손달익 위임목사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진전이나 사물의 발전 과정에 있는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기본 어원은 ‘근원이 같은 물이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산마루나 산맥’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내용에 극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분수령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욘이라는 매우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욘은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고 기업인이었

으며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매우 합리적인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탄의 계략으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족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녀들은 몰사 당하고 온몸에는 종기가 생겨 진물이 흘러 그는 재속에 앉아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상처를 굼여야만 하는 극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하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그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욘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속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욘에게 마침내 갈등과 고민이 끝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시간은 욘의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1.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경험자이며 최악의 낙으로 떨어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항변도 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5절) 욘은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오직 한 가지 신앙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주님을 뵈는 신앙은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런 노력이 발전하여 신학이 되고, 변증학이 되고, 선교를 위한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면 공리공론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은 강화되지만 자기 성찰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욘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계속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치열한 논리 공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에 붙잡혀 괴로움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욘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욘 38:2) 치열한 자기 논리로 논쟁한 그에게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혹평하셨습니다. 이에 욘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욘 42:3) 라고 실토했습니다. 신앙은 우리 논리 안에 갇혀 있

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논리를 훨씬 넘어서는 초월적이며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뵈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2.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 나이다”(6절) 욘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은 가장 극한의 회개입니다. 욘이 이토록 애통하게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온전하게 살았다고 자부해 온 교만과 무지에 대한 것입니다. 욘의 마음에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그를 충격에 빠지게 했고 욘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욘에게 ‘네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하자.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빈궁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 능력은 누가 준 것이냐?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일생을 살았다면 그 삶의 능력은 또 어디서 온 것이냐?’고 추궁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뭘 자랑하고 교만하냐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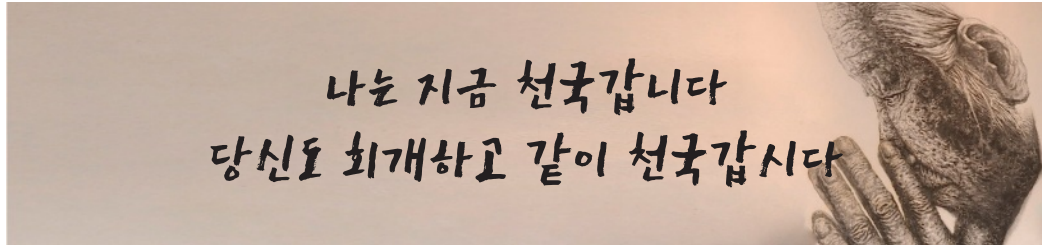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고 금지도 높아야 하고 자존감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면 그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었고 내가 의로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흑사라도 교만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것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3.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욘이 회개하고 겸비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10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이 감절의 은혜는 감당 못할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욘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명예의 회복이었습니다. 존경 받았던 경건한 욘이 완전한 이종인격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욘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욘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8절) 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구들에 대하여 노하거나 질책하지 않았고 분노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의 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심으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이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의 비전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온유합니다. 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주님의 길만 걷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내 삶 속에 임재 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으로 믿음이 성숙해져 회복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위 : 순교 당하면서도 인민군에게 전도했던 순교자들
아래 : 순교자들을 수장할 때 사용한 돌들

파고 산 채로 매장해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신앙의 변절을 거부하며 처절한 몸부림으로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으며 순교자들의 신앙은 우리의 자랑이고 긍지임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은경 집사 (편집부)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지난주일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설교시간에 말씀하신 전라남도 영광소재 염산교회와 야월교회의 순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집부)

6.25 한국전쟁 당시 영광에서 194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습니다. 순교자 대부분은 염산 지역의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교인들로 특히 염산교회는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 순교지로 한국전쟁 당시 77명의 교인이 순교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이후의 염산은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북한군이 산에서 내려와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공산주의와 정반대인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그해 9월,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UN군이 영광으로 들어오자 주민들은 크게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북한군이 환영회를 주도한 염산교회 청년부 성도였던 고등학생 기삼도를 죽창으로 찔러 죽인 것을 시작으로 염산교회 교인들을 학살했다고 전해집니다.

10월 3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을 거쳐 순교했는데 그 기간이면 피난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새끼줄로 엮은 돌을 매단 채 교회 앞 바닷가로 끌려가 수장 당했습니다.

당시 담임이던 故 김방호 목사는 8명의 가

족들과 함께 몽둥이질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일반 성도와 28명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의 순교도 이어졌습니다. 故 노병재 집사와 그의 3형제 가족 22명은 수장을 당했는데 죽어가면서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양을 했다고 당시 목격자들이 증언하였습니다.

故 박귀덕 권사의 네 딸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수장 당했습니다. 15살 첫째 딸은 3살 먹은 막내동생을 업고 수장 당하러 걸어가면서 우는 어린 동생들에게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에 인민군은 큰딸과 막내 딸의 목을 베어 바다로 던졌다는 것이 당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은 돌이나 몽둥이질에 목숨을 잃었고 죽창에 찔리고 생매장을 당하고 돌맹이를 목에 걸고 수장 당하면서도 가해자들에게 "나는 지금 천국갑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같이 천국갑시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염산교회 순교의 현장은 잔혹했지만 성도들은 돌아갈 천국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근의 야월교회에서도 같은 시기에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65명의 전 교인이 모두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민군들은 야월교회 성도 65명을 간척지 수문에 돌과 함께 매달아 죽이기도 했고, 갯벌과 산에 구덩이를

평생을 군인 정신으로 살아오신 나의 아버지



허미옥 권사 (교구)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합니다. 아버지 허동영계도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육군 보병학교 갑종 1기로 입관 후 6.25 전쟁 중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누비셨습니다. 경북 영덕 전투에서는 안타깝게 적의 총탄을 맞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 치료를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다행히 탄장을 매고 있어 가슴을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X-ray 상에 탄환이 박혀 있음) 그 후 영덕 영천 다부동 전투에 참가하셨는데 그때 병사의 절반 이상을 잃은 일

에 항상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베트남 전에도 파병되어 한국군의 용맹을 떨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때의 갑종 장교들은 호국의 주역으로 국가안보와 조국 근대화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육군 준장으로 통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전쟁으로 모든 국민이 불행해지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고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겪지 않아 염려되지만 지혜롭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지키는 일에 잘 대처해 나가리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평생을 군인 정신으로 소신껏 살아오셨기에 자랑스럽고 떳떳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아버지께서 앞으로의 날들도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첫째 날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다 (막 2:1-12)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곳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확장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때 병 고침을 받기 위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문으로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뚫고 마당으로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 환자를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본문에는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말도 없는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그 중풍병 환자는 말을 하지 못해도 어떻게라도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죄 사함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10절) 예수님의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죄가 있고,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아시고 이 권세를 드러내시기 위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회개 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인데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11절) 여기에 일어나라, 들어라, 가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들 수 있는 힘과 집으로 걸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곧 온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행 3장에 미문의 걷지 못하던 자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것도 전인적인 치유요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고치시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고치시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게 하시고 삶의 그릇된 습관 등을 전방위적으로 고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치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12절) 군중들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누구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이 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병 고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 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알아보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진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상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돌아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날 비웃음을 넘어 고치시다 (마 9:18-26)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과도하게 흥분하기도 하고 몹시 실망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신앙의 용기를 상실하거나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동안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나 당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무리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또한 세리나 죄인들이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니 이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조직과 체계도 없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반기 즈음에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시며 사람들 눈에는 다 없어지고 실

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때가 올 것이라고 소망에 찬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므로 아무 염려 말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들려졌습니다.(마 27:28-29)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본받아 용기와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가만히 그 겹옷 가를 만졌습니다.(20절)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22절)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질병 때문에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옷만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22절), 다시 말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아이로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고 담대한 청을 들으시고 즉시로 일어나셔서 죽은 아이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 뱉음을 혼자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품으로 모두 나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날
탄식하며 고치시다
(눅 9:37-43)**

일은 벌어졌는데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우리 안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이러한 탄식은 연약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셨다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탄식을 하시기도 하지만 탄식을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사 21:2) 하나님은 우리 슬픔과 탄식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사 35:10, 51:11)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어 사역하시면서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마음에 적잖은 걱정과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교만과 완고함을 보시고 탄식하였습니다.(막 8:12)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롬 8:26)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슬픔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견져 내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신령한 변화를 경험하시고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고치심을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제자들이 병 고침을 시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한달음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41절)라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까? 먼저는 아이를 보시며 악한 영에게 능력 당하는 인생의 연약함에 탄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진 아버지의 무능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식은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마 10:1, 막 6:12-13)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병을 고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

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가슴에 안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41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에 길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능한 지도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무능이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문제에만 집착하거나 현실만을 보지 말고 믿음 없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롬 1:17)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무능한 믿음에서 능력있는 믿음으로 내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능을 호통치시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설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십자가입니다. 현대교회의 질병은 ‘기도 부족증’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했던 일을 지금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자랑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가능했고 역사를 견인하는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날
38년의 절망을 고치시다
(요 5:2-15)**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한계에 부딪치면서 습관적으로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절망의 감정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은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시 40:1) 시인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견지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이나 병석에 있었던 이 사람은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의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곳에 오긴 했지만 혼자서 몸으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물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그에게 희망이 찾아왔는데, 그 희망은 바로 이 병자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의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몰려들어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됩니다. 그러나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으신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곳이나 노래소리 가득한 거리로 가지 않고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못가로 가셨습니다. 이 못가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면서부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삶의 한 가운데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요 1:14)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새롭게 인생의 등불을 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날마다 실망하고 상처받는 삶을 수십 년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순간 그의 삶에는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사는 절망적인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독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것은 그가 이미 병이 오래된 줄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6절)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

이 가장 절망적으로 보였고, 가장 처참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가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 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8절) 이것은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긴 세월 자신을 받쳐주었던 자리 하나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며 지난 날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절망적이었던 존재였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평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째 날 열 사람을 함께 고치시다 (눅 17:11-19)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들은 이 땅에 버려진 나병환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전국의 모든 나병환자 병원이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고, 나병환자들은 그들에게 돌봄을 받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선교사의 품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땅에는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 예수병원에서 선교사들이 쓴 일지에 의하면 병원을 찾은 병자 대부분이 질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모두가 조상을 잘못 모셨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병에 걸렸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돌봄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나라 전체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정신은 성경에서 나병환자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자 했던 것으로 이들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선진들의 발자취입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은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원칙과 헌법처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산상수훈이 헌법이요 헌장입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후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한 나병환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마 8장)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마 8:3) 말씀만으로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손을 그에게 대셨다는 것은 그 나병환자의 가여운 일생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금하실 수 없는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나병환자 열 명을 한꺼번에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열 사람들은 어쩌다가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먼저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때입니다.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몹시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나병환자가 모여 있던 곳은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찾아가 병든 몸을 고치시고 파괴된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들르신 것입니다.

나병환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나병환자 열 명을 한꺼번에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집단을, 혹은 한 사회를, 혹은 한 나라를 집단적으로 고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부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단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중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벼린 아홉 사람에게 대한 섭섭함 보다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이 너무 고맙고 기뻐서어 그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며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병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것뿐이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이번 흥해작전의 주제 성구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대하 7:14) 입니다.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것은 이 사회에 깃들여져 있는 모든 병폐를 거둬내고 그릇된 문화를 종식시키고, 사회의 구조를 개혁시키어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공동체로 바꾸는 역사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치유되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극화 문제, 집단적 이기주의, 돌로 나뉜 진영 논리 등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고쳐진 땅에 살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침의 은혜를 받아 개인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나라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육부서 앞에 놓인 흥해



장윤기 안수집사
(청년부 부장)

흥해작전은 다른 교회에는 없는 서울교회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과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조직이 구성되고 30년 넘게 이어오는 행사임에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신중을 기하고 “동원”과 “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설립 목표와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1991년 11월 서울교회 창립 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40일간 기도한 것이 사명자대회이고, 6개월 후 초심을 잃어버리고 장애물을 만나 포기하려고 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흥해작전입니다. 당시 유모차와 포대기를 동원하고 자는 어린이는 업고 큰 애들은 다그치며 교회로 나옵니다. 학생들이 흥해작전에 나오는 동기는 8층에서 제공하는 컵라면을 먹기 위함이고, 엄마 몰래 한 개 더 먹기 위해 교회학교 선생님 옆에 붙어서 선생님 것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인기 있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흥해작전에 출석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랬던 흥해작전도 변해갑니다. 20일에서 17일로 줄고, 다시 특별새벽기도 시간이 생기고, 교회에 가득하던 유모차와 포대기는 사라졌고 8층에서 제공하는 컵라면이 새벽기도 출석의 동기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교육부서에 게도 흥해작전은 건너기 어려운 흥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흥해를 건널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답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라 생각하면 쉽고, 학원에 가야하니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됩니다. 그러다 이번 흥해작전 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는 않는다.”

입니다. 흥해작전 행사를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각 부서에 맡겼습니다. 순례자에 하는 교육부서 사생대회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부서에 맞게, 학생들 상황에 맞게 행사하라고 했습니다. 4행시, 그림그리기, 캘리그라피를 하지만 틀에 박힌 양식을 배부하지 않았습니니다. 시대에 맞게 SNS 관련 콘텐츠를 응용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니다.

그러자 유아부에서 7층 복도에 갈라진 흥해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7층에 있는 어린이들은 갈라진 흥해를 자연스럽게 지나쳐 가나안 땅인 예배당으로 걸어갑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흥해를 건넌습니다.



유치부는 흥해작전 4행시가 아닌 흥해작전 주제를 가지고 협동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통해 흥해작전의 의미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각자 따로 그린 그림을 합쳐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유년부는 동영상 쇼츠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로 흥해작전 사행시를 춤으로 표현합니다.



리고 4행시를 동영상 기술을 이용해 쇼츠 형태로 만듭니다.

어린이 티를 벗은 학생들의 그림그리기는 종이와 크레파스가 아닌 아이패드와 애플펜슬로 그림을 그려 이미지 파일로 제출합니다. 그

30년 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20년 전의 경험으로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교육부서 앞에 놓인 흥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을 때 어른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각 교육부서의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으면 매주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흥해를 건널 것입니다.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70인전도대 6월 전도 일정

날짜	주일 (오후 1시-2시)	날짜	수요일 (오후 1시-2시)
6/25	자원자	6/28	리브가



6월 17일 토요일노방 전도 홍해작전본부팀, 모세선교회

득남



- 신정우 성도·김현지 성도 가정
신지울 아기 (5월 23일)
(1교구 김영선 집사·권택숙 권사 외손자)



- 최종국 전도사·유에스터 사모 가정
최이현 아기 (6월 20일)

식사 제공

- 이미리 집사·이미영 집사·이미경 집사 (어머니 홍순복 사모님 생신을 감사드리며)

기증



1교구 유미영 권사님께서
홍해작전 기간 동안
구운달걀 3,000개, 식
혜 1,500캔을 섬겨주셨
습니다

떡·수박 제공

- 백도환 안수집사(16대 장로 피택자)·석춘희 권사 가정
: 홍해작전 승전 감사 떡과 수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 2독	확인
6월26일	월	시 69-72		6월26일	월	딤후 1-3, 몬, 히 1-6	
6월27일	화	시 73-77		6월27일	화	히 7-13	
6월28일	수	시 78-79		6월28일	수	약 1-5	
6월29일	목	시 80-84		6월29일	목	벤전 1-5, 벤후 1-3	
6월30일	금	시 85-89		6월30일	금	요일 1-5, 요이, 요삼, 유	
7월1일	토	시 90-95		7월1일	토	계 1-10	
7월2일	주일	시 96-102		7월2일	주일	계 11-2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 기간 동안의 새벽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예배와 섬김, 신행일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2. 7월 29일(토) 한마음축제, 27(목)-29일(토) 교육부 연합수련회에 서울교회 온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70인전도대와 전도회, 선교회가 함께 하는 전도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여주소서.
3.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전쟁과 폭력, 가난과 기아 등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자비로 함께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서
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김
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